



재활용공제사업, 이제는 저비용 고효율화로 발전 -제5기 정기총회에서 확정-



총회 이모저모

협회에서는 EPR 제도 시행 초기단계로서 플라스틱 재활용의 기반구축에 중점을 두어왔다면, 이제는 기 구축된 재활용 인프라를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활성화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저비용 고효율 재활용 공제사업으로 발전시켜나가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07년도 사업계획을 지난 2월 22일 개최된 제5회 정기총회에서 확정 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재활용부과금 충담금과 재활용 실적 बैं킹량의 일부 사용을 통하여 재활용 의무생산자의 분담금을 할인하고 재활용제품의 생산·판매 Network 구축 및 판로 개척, RPF의 유상 공급 및 수요 확대를 통해 재활용 회원사의 경쟁력을 높이는 등 저비용 고효율화를 위한 다각도의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한편, 동 정기총회에서는 2007년도 사업계획 및 2006년도 사업결과 심의 이외에도, 협회의 신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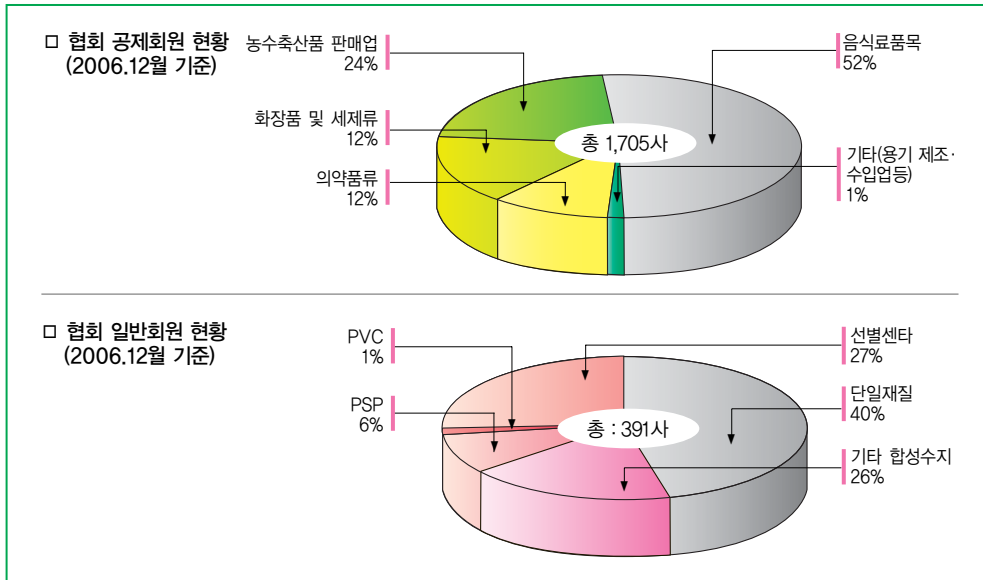
정수용 회장(오른쪽)이 협회 발전에 공로가 큰 회원사 관계자에게 공로패를 수여하고 있다.

이사로 한국계약협회 문경태 부회장, (주)LG생활건강 안일동 대외협력부부장, (주)지아이디 강석우 대표이사, (주)현대자원 최동철 대표이사를 선임하였으며, 감사는 현행대로 한국석유공업협회 손종채 부회장과 대한화장품협회 안정림 부회장을 연임 하였다.

또한, 지난 1년간 플라스틱 재활용 산업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남다른 관심과 열정으로 협회 발전을 위한 지대한 공로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자 오뚜기라면(주)등 15개 공제회원사, 용산수지 등 10개 일반회원사와 경남 창원시청 등 6개 관계기관에 공로패를 수여하였다.

[제5기 정기총회 주요 내용]

■ 회원사 현황



■ 2006년 재활용실적보고

2006년도 재활용 실적

(단위 : 톤)

구 분	사업계획량	실 적	달 성 율	
기타합성수지	단일재질 용기류 및 트레이	38,000	36,850	97%
	복합 및 필름류	65,600	62,414	95%
P V C	1,150	1,144	99%	
P S P	1,850	1,590	86%	
계	106,600	101,998	96%	

주) 1. 상기 실적은 재활용회원으로 지급한 지원금 기준 2. 최종 실적은 공사의 최종 실적인정이 끝나는 6월경 확정.

년도별 의무량 대비 재활용실적 추이

(단위 : 톤)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의무량	36,328	64,913	86,122	88,431
재활용실적	67,406	87,618	118,233	101,998

■ 2007년도 재활용사업 계획 확정

재질별 재활용 사업계획량

(단위 : 톤)

구 분	예상의무량	뱅크량	사업계획량	비 고
단일재질	43,900	3,900	40,000	
기타합성수지	48,700	1,800	46,900	혼비율 미적용(85,000)
PSP	1,960	360	1,600	
PVC	1,440	140	1,300	
계	96,000	6,200	89,8	

※ 부족분은 뱅크량을 사용하고 기타합성수지 실제 재활용량은 EPR 혼입비율(55%)을 감안하여 85,000톤으로 설정



■ 의무생산자 재활용 분담금 5% 할인

협회는 저비용 고효율의 일환으로 2007년도 재활용 의무생산자들의 재활용 분담금을 5% 할인하기로 하였다. 그 동안의 बैं킹양을 활용하고 경비를 최소화하여, 할인율이 결정되었으며 의무생산자들은 2007년도 분담금에서 일률적으로 5% 할인하여 분담금을 납부 하게 된다.

■ 기타사항

(1) 기타합성수지 재활용 물량 배정 방법개선

07년도 기타합성 수지 사업계획량(85,000톤)에 대한 물량 배정 방법을 종전 생산능력에 따른 단순 비례배정에서 회원사의 다면 평가기준에 따른 차등 배정으로 개선하기로 하였다. 2007년도 기타합성수지 재활용 사업 물량 배정개선 방안은 회원사별 생산능력 뿐만 아니라 기술개발이나 제품 품질개선 또는 유상 판매 등에 대한 노력, 회의 참석이나 자료조사 참여도 등에 따른 인센티브를 점수화하여 계약물량을 배정함으로써 회원사의 보다 적극적인 재활용공제사업 참여와 재활용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자발적인 노력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진다.

(2) 단일재질 재활용회원의 원자재 안정 공급을 위한 선별센터와의 협조체계 강화

단일재질 재활용회원과 수집선별 회원사가 폐플라스틱 원자재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협조체계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수집선별회원사들은 필름류가 EPR 대상품으로 포함되어짐에 따라 수집되는 폐플라스틱 중 과자, 빵 라면봉지 등 비유가품인 필름류가 대량으로 입고됨에 따라 채산성이 극히 악화되고 선별된 폐플라스틱의 성상도 나빠져, 원자재를 공급받는 단일재질 재활용업체들까지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1월 27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대회의실에서 단일재질 재활용회원과 선별센터 회원사간의 연선회의를 가졌으며, 수집선별회원사에서는 단일재질 재활용회사에게 양질의 폐플라스틱을 공급하고, 단일재질 재활용회원사들은 수집선별회원의 선별비 일부를 지원하여 원자재를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수집선별회원사들은 자사가 공급한 단일재질 재활용 회원사의 물량을, 단일재질 재활용회원사들은 수집선별센터별로 자사가 공급받은 폐플라스틱 물량을 각각 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협회는 해당회원사들이 상반기와 하반기 실적을 보고하면 단일재질 재활용회사에게 종전 kg당 60원 지급하던 지원비 중 kg당 30원을 수집선별회원에 지원 하게 된다.

(3) EPR 혼입비율 자체조사를 통한 재활용회원사 적정관리

2007년부터 환경 자원공사에서 실시하던 EPR 혼입비율 조사를 협회에서 직접 하게 된다. 전문성을 가진 협회가 회원사를 직접 방문하여 실시하므로 신뢰성을 제고시키고 공사와 재활용업체간의 마찰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협회에서는 연 2회 이상 수시 및 불시로 재활용회원을 방문하여 EPR 혼입비율을 조사할 뿐만 아니라 양질의 재활용이 될 수 있도록 선별품의 품질을 향상시켜 나갈 계획 것이다.